

# 다문화 서사에 나타난 초국적 이주와 고향의 의미

조선족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엄숙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전담교수, 현대소설 전공  
ush8016@naver.com

- I. '고향 서사'로서의 다문화 서사
- II. 존재의 불안과 유토피아적 환상 공간
- III. 이주민의 정체성 갈등과 고향의 재구성
- IV. 혼종적 공간 속 탈경계의 욕망
- V. 이주의 일상화와 편재하는 고향

## I. '고향 서사'로서의 다문화 서사

2000년대 이후 한국 소설은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풍경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 출현한 낯선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생경한 삶의 양상들이 소설 속에서 인상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런 다문화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모티프 중의 하나가 '고향'이다. 대개는 한국 사회에서의 험난한 정착 과정을 보여주는 다문화 소설 속 이방인들이 자주 떠올리는 곳이 '고향'이다. 소설 속 이방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불안한 이유는 새로운 삶을 찾아 국경을 넘어온 이주국에서의 삶이 그다지 순탄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어딘가로부터 떠나온, 즉 삶의 근거지로부터 한번 '뿌리 뽑힌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에 의하면 어딘가로부터 떠나온 이들이 지닌 상실감, 다시 말해 고향을 잃은 상실감은 존재 불안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방인들의 불안한 삶은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배제 탓도 크지만 이주 자체에서 오는 상실감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다문화 소설 속 이방인들은 수시로 '고향'을 떠올린다. 작중에서 이방인들이 고향을 떠올리는 정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무국적자, 불법체류자, 비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은 치외법권 지대에서 한계 상황에 처할 때마다 고향을 떠올린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이 떠나온 곳, 즉 자기가 살던 집이나 마을을,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국가를 고향으로 떠올리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향 음식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또한 중첩된 이주의 역사를 지닌 조선족의 경우, 그들은 '발해'라는 역사 공간을 시원의 고향으로 여기며 고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체성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다문화 소설에서 재현되는 이방인들의 향수는 국경을 넘은 이주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고향 상실에서 기인하거나, 이주 자체가 야기한 존재의 불안이라는 점에서 존재론적인 고향 상실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2000년대 한국 소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동거인인 이방인들의 삶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양산되었다. 다문화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소설 속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존재 양상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소설 속에서 이방인들은 대개 자기 삶의 주체라기

보다는 환경에 의해 부여된 존재의 위치를 수용하며 타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단일성에 익숙해 있던 사회에 출현한 낯선 이방인들은 다문화 현상을 담아낸 초기 소설들에서 주로 경계인으로서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는 불안한 타자로만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런 다문화 소설의 현실을 반영하듯 관련 연구들 또한 주로 이방인들의 타자성이나 정체성 갈등 문제를 규명하는 데 집중된 편이다.<sup>1)</sup> 이렇듯 다문화 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소설 속 이방인들의 삶의 양상에 주목하면서도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향’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은 연구는 없다.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연구자들에게는 소설 속 이방인들이 삶의 위안처로 떠올리는 ‘(상상의) 고향’보다는 소설 속에서 구체화된 이방인들의 신산한 삶이 더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까지 양산된 다문화 소설들 곳곳에서 확인되는 ‘고향’에 대한 이방인들의 짙은 향수가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현대인들에게 이주의 시대에서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유하게 한다. 또한 이 지점에서 소설은 인간이 공간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사유하게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 인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주의 공간에서 이방인들은 낯선 공간과 새로운 관계맺음을 하면서 자신을 형성해간다. 따라서 이방인이 ‘고향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새로운 공간에 던져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연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방인들의 정착기를 보여주는 다문화 소설 중 고향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조선족 소재 다문화 소설을 대상으로 소설이 ‘고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초국적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향의 의미를 사유하게 하고, 더불어 초국적 이주가 만들어낸 탈경계 시대를

1) 이와 관련된 주요 논의로는 이미림, 「다문화 공간에 나타난 지리적 타자성: 2000년대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 63집(한국문학회, 2013); 연남경, 「다문화 소설의 탈경계적 주체 연구 ‘이방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서동훈, 「다문화사회의 소설적 재현에 대한 연구」, 『한국말글학』(한국말글학회, 2012); 이호규, 「타자로서의 발견, ‘우리’로서의 자각과 확인」, 『현대문학의 연구』 제36집(2008); 오윤호,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와 우리 안의 타자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40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송현호, 「〈가리봉 양꼬치〉에 나타난 이주 담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1호(2012) 등이 있다.

살아가는 삶 또한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양산된 조선족 소재 다문화 소설 중 '고향'이 비교적 중요한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는 소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해당 텍스트로는 공선옥의 『유랑가족』(2005), 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2005), 한수영의 『그녀의 나무 핑귀리』(2006), 박찬순의 『가리봉 양꼬치』(2006) 등이 있다.

덧붙이자면, 한국 소설에서 고향 서사는 일종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데 21세기 이방인들의 고향을 문제 삼은 다문화 소설이 그 고향 서사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시대에 이르기까지 탈향과 귀향을 주제로 한 소설들에서 고향의 의미를 천착해왔다.<sup>2)</sup> 이런 고향 서사의 계보는 이제 초국적 이주 시대의 고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다문화 소설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 시대에 고향의 문제는 더 이상 국내 이주의 문제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이제는 일국 내에서의 탈향과 귀향이 빈번해지면서 향수는 일상성이 되어버렸다. 그럴 때 현대인들에게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은 국경을 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문화 소설은 공간의 확장을 경험하면서 전 지구적 시대의 고향의 의미를 사유하게 하는 21세기의 고향 서사라 할 수 있다.

## II. 존재의 불안과 유토피아적 환상 공간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대에 와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물망에 의해 통제되는 일상의 세계는 본래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

---

2) 고향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담아내는 소설에서 고향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소설에는 인간들이 직면한 고향 상실의 불안이 배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특히 고향 서사라 할 수 있는 것은 고향이 주요 모티프가 되면서 서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경우이다. 이런 고향 서사가 대개는 탈향과 이향, 귀향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사적 정황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두드러진 이주현상으로는 일제강점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해외로의 노동 이주를 들 수 있으며, 이후에는 1960, 1970년대의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 속에서의 이주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에도 이 시기의 작품에서 고향은 중요한 소재로 다뤄지며 현대인들에게 고향의 의미를 천착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국외로의 이주 문제를 담아내기 시작한 다문화 소설은 전 지구적 차원의 탈향민들의 고향 문제를 다루는 고향 서사라 할 수 있다.

거는 현대인들이 기술문명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고향을 잃고 존재 의미를 상실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진단한다.<sup>3)</sup> 볼노(Otto Friedrich Bollnow)도 하이데거와 유사한 의미에서 고향 상실을 진단한다. 현대에 와서는 신화적 인간에게 주어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은 상실되고 객관적 중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객관적인 체제에 고정되었던 현실도 뿌리 뽑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도 특별히 매여 있지 않게 되어 고향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망명자가 되었다고 한다.<sup>4)</sup>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들이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은 더 나은 만족을 추구해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존재들이지만 그들에게 안식처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떠남 자체가 이방인들에게는 불안한 상태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세계-내-존재를 던져져 있음으로 설명한다. 어딘가로 던져진 상태는 인간이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그의 의지에 반하여 거친 방식으로 낯선 매개체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어딘가에 던져진 인간은 스스로도 낯설고 불안하지만 주변에게도 낯설고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 공간에서의 인간은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면 “잉여적”이다. 즉,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존재다.<sup>5)</sup> 인간은 낯선 곳으로 던져진 자체로 불안을 배태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불안을 배태해버린 이방인들에게 경계짓기가 강화된 현실세계는 더욱 험난한 곳이다. 현재 세계는 경계를 넘는 초국적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자와 이주민, 피난민, 탈출자, 임시노동자, 그리고 여타의 이동 중인 집단들과 개인들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을 구성하며, 국가 정치에 유례없던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6)</sup>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초국적 이동은 자본의 문체와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는 인구의 흐름, 특히 노동자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경계짓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현대의 많은 이방인들을 불안한 존재로 만들고 그럴 때 이방인들은 향수에 젖게 된다. 이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고향은 이미 과거의 고향이 아니다.

3) 이기상, 『존재와 시간』(살림출판사, 2006), 273쪽.

4)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저,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에코리브르, 2011), 163쪽.

5) 위의 책, 356쪽.

6) 아르준 아파두라이 저, 차원현 외 역, 『고삐 풀린 현대성』(현실문화연구, 2004), 62쪽.

과거는 이미 귀환 불가능한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수는 숙명적으로 대상이 없는 욕망에 대한 감성으로 표현된다.<sup>7)</sup> 그런 점에서 현대의 인간이 고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곳을 상상하고 발견해가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과거의 고향 이미지를 바탕으로 미래에 도래할 고향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구축해나가는 것이 현대인의 숙명이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귀환하고자 하는 고향은 딱히 과거의 그곳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이 잠시 거하는 곳과 대비되는 어떤 장소이다. 안정적인 유토피아로 다가오는 그곳이 현대인이 영원히 거하고 싶은 곳, ‘고향’이다.<sup>8)</sup> 따라서 이런 고향의 본질은 반드시 이방성을 필요로 한다. 이방성이 제거된 곳에서는 고향이 설 자리가 없다.<sup>9)</sup> 오직 어딘가로부터 떠나온 존재인 이방인만이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이주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조선족 소재 다문화 소설은 이처럼 고향을 상실한 이방인들의 존재 양상을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이다. 따라서 소설 속에서는 낯선 곳에 던져진 이방인들이 한계 상황에 맞닥트릴 때마다 고향을 떠올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실제로 인간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는 다양할 것이다. 유사한 풍경, 음식, 유사한 느낌의 사람들(공동체), 그들의 언어 등 이방인들이 고향과 마주하는 상황은 수시로 접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고향을 떠올리는 장면들이 나타난다.

『잘가라, 서커스』에서 조선족 결혼 이주민 여성 ‘해화’는 한국에서 복사꽃 날리는 것을 보며 고향의 ‘사과배’를 떠올린다.

종다리 피꼴새야 노래해다오, 연분홍 진달래야 춤추어다오, 우리 마을 과수나무 꽃 피어난다네, 처녀 숨씨 하도 좋아 범나비 난다, 해당패 자동차야 빨리 와다오, 우리 마음 담백 신고 북경에 간다네, 사과배요 연변의 사과배는요, 목마른 갈증이 딱 떨어진다네, 삼복철 스리슬슬 녹는 꿀맛이라네.

내 눈앞엔 어느새 하얗게 핀 사과배 꽃잎이 펼쳐졌다. 봄이면 희디흰 꽃잎들이 눈처럼 나부끼던 너른 밭, 작은 소쿠리 옆에 끼고 동무들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꽃잎 주워담던 어린 시절, 흑여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꽃잎을 무르게 할까 가느다란

7) 김광기, 「멜랑콜리, 노스탤지어, 그리고 고향」, 『사회와 이론』 제23집(2013), 176-180쪽.

8) 위의 논문, 181쪽.

9) 위의 논문, 187쪽.

나무젓가락으로 살포시 살아올리곤 했었지. 소쿠리 속에 꽃잎들이 가득 들어찰 즈음이면 흰 꽃잎들은 석양에 몰들어 밧그레 달아올랐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결에 단내가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꿀을 잔뜩 품은 꽃내음은 이내 과즙 냄새로 이어졌다. 그것은 먼 북쪽에 남겨두고 온 향기. 한 입 베어물면 입 안 가득 고이던 사과배 냄새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울컥 솟구치는 마음에 노래를 멈추고 복사나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잘가라, 서커스』, 55-56쪽)

제가 살던 용정에는 사과배라는 게 있었다. 그 사과배라는 게 저희 중국의 조선족들과 똑같은 말임다. 왜서 같은가 하면 조선에서 이주해 오면서 사과 묘목을 갖고 온 사람이 그걸 연변 참배나무에 접목시키지 않았겠습까. 모두 세 그루였는데 그중 용케 한 그루가 살아남았담다. 그래서 열린 거이 모양은 사과 비슷하고 맛은 배 비슷한 희한한 과일이 나왔단 말임다. 그것이 이젠 용정의 특산물이 되었지 않았습까. 용정에 있는 제일 큰 과수원은 그 면적이 만 무가 넘는다고 만무과원이라 함다. 그러니 중국에서 터전을 잡은 우리 조선족들과 어찌 같지 않겠습까. 복사꽃 날리는 걸 보니 자꾸자꾸 사과배꽃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얼마 있으면 그곳에도 배꽃이 피겠습다. (『잘가라, 서커스』, 58쪽)

조선족에게 ‘사과배’는 특별한 음식이다. 조선의 사과나무와 연변의 배나무가 접목된 사과배는 이제 연변의 특산물이 되어 중국국민으로 살아가는 조선족의 이중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음식이다.<sup>10)</sup> (소설 속의)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이런 사과배를 자주 떠올리는 것은 단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넘어서 존재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한국의 장애인 남편에게 시집온 해화의 초기 결혼 생활은 순탄해 보인다. 장애를 가졌지만 자신에게 헌신하는 남편과 부덕(婦德, 不德)한 시어머니 밑에서 해화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사랑하는 연인이 따로 있다. 그렇다고 지금 남편과의 결혼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채워질 수 없는 그리움을 품고 사는 여인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에서 안정을 찾은 듯 보이는 해화는 만날 수 없는 연인으로 인해 심연의 그리움을 지니며 불안하게 살아간다. 그런 그녀에게 고향은 사과배의 기억으로 떠올려진다. 사과배 노래를 흥얼거리고 사과배꽃이

10) 기존 연구들에서 조선족의 혼종의 산물인 사과배는 주로 문화적 혼종성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사과배가 지닌 혼종성과 이국성을 조선족의 특징과 연결해 논의하는 식이다. 이 글에서 사과배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한국의 김치처럼 조선족에게 사과배가 지니는 특별한 의미에 주목해 고향을 환기시키는 조선족의 대표음식으로 다루고 있다.

흠날리는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며 해화는 눈시울을 붉힌다. 사과배 꽃잎을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의 '단내', '꿀을 잔뜩 품은 꽃내음', '과즙 냄새', 이런 것들은 조선족에게는 북쪽에 남겨두고 온 고향의 향기이다. 그녀에게 사과배와 함께 떠올러지는 고향은 달콤한 사과배 향기가 감싸고 있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유년 시절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실질적인 추억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재의 해화에 의해 재구성된 유토피아적·이미지적인 심상 공간이다.

『그녀의 나무 핑귀리』의 결혼이주민 여성 '만자'도 생활력 강한 조선족 여성이다. 이에 반해 그녀의 남편 '동배'는 무능력하며 바람기 많고 폭력적이다. 이런 남편과 사는 '만자'의 삶은 신산하기만 하다.

핑귀리를 먹고 싶어. 그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녀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미상을 타러 갔지요. 멍이 든 한쪽 눈을 채 감추지도 못하고요.(『그녀의 나무 핑귀리』, 64쪽)

고향에서는 늘 자전거를 탔었지요. [...] 저 멀리 눈에 익은 산들이 보이고 그 아래로 친정어머니의 젓무덤 같은 구릉들이 펼쳐집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달리면 마루에 앉아 해바라기하는 병든 친정아버지와 그 곁의 친정어머니를 볼 수 있겠지요. 초청장만 기다리고 있는 남동생도요. 이제 산정 모퉁이만 돌면 고향집이 나타나요. 언뜻 고향집 앞에 서 있는 핑귀리 나무를 본 것도 같습니다.(『그녀의 나무 핑귀리』, 77쪽)

남편의 샌드백이 되어 늘 한쪽 눈에 멍이 들어 있는 '만자'는 고향의 핑귀리(사과배)를 자주 떠올린다. 만자가 떠올리는 '핑귀리'는 절박하고 간절함에서 기인한다. 현실적으로 그녀의 고향은 가난하고 병든 아버지와 자신의 초청장만 기다리고 있는 남동생이 있는 불편한 곳이다. 하지만 현재의 불안한 삶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함께했던 가족과 핑귀리가 있는 따뜻했던 고향을 떠올린다. 『잘가라, 서커스』에서 한 조선족 여인은 이런 고향을 직접적으로 '심정 안의 고향일 뿐이라고 한다. 그들의 고향은 '돈 없는 고향', '가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고향'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피죽을 먹어도 돈 있는 땅에서 먹는 게 좋다"(『잘가라, 서커스』, 87쪽)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향은 그저 심정 안에서만, 그들이 떠나온 따뜻했던 유토피아로서만 회상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온 고향을 경제적인 이유로 돌아갈 수 없는 조선족



들은 이주민이라는 숙명적인 존재의 불안으로 늘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들에게 고향은 두고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위안으로만 떠올려야 하는 그런 곳이다.

한편, 이런 사과배처럼 조선족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은 중국 식당에서 맛보는 바이주(고량주)라는 ‘흰술’이다.

지하도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다 또 골목을 돌아돌아 도착한 곳은 화귀(火鍋)집이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풍겨왔다. 익숙한 것은 냄새뿐이 아니었다. 양고기 썰집, 중국식료품 재료상, 한자로 적힌 노래방 간판, 엔지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식당에 들어가자 신문을 보고 있던 주인 남자가 여자와 아짐을 반갑게 맞았다.

두 가지 육수를 끓일 수 있는 노구술을 중심으로 각종 야채와 버섯, 양고기가 식탁 가득 차려졌다. 여자는 흰술을 한 병 시켜 한 잔 꼰뚝 채우고 다른 사람들 잔에도 채워주었다. 여자는 육수가 채 끓기도 전에 술 한 잔을 단숨에 비워내고는 썩두부 한 점을 집어먹었다. 나도 여자를 따라 술잔을 들고 입을 축였다. 알싸하면서 달큰한 술냄새가 입 안에 가득 들이쳤다.

타지에서 맛보는 흰술의 맛은 서글팠다. 술은 모든 긴장을 무장해제시키고 기억을 부르는 마력을 갖고 있었다. 불과한 얼굴로 돈을 질러넣어주던 영육이며, 연회에서 술잔을 돌리며 즐거워하던 아버지 얼굴이며, 약초 술을 만들던 엄마 손이 술향기처럼 알싸하게 번져갔다. (『잘가라, 서커스』, 179-180쪽)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의 ‘한자’ 간판과 ‘향신료 냄새가 고향의 향수를 자극한다면, 조선족들에게 중국의 대표적인 술인 ‘흰술’은 긴장을 무장해제시켜 기억을 부르는 마력을 발휘한다. 이국에서 마시는 고향의 술맛은 서글팠지만 해화에게 친했던 친구를 떠올리게 하고, 즐거워하던 아버지 얼굴과 약초 술을 담그던 엄마 손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족의 ‘사과배’와 그들이 즐겨 마시는 ‘흰술’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런 음식과 함께 떠올려지는 것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로, 불안한 조선족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이다. 음식을 매개로 고향은 따뜻한 가족과 익숙한 음식이 함께했던 시공간으로, 현실적인 공간이 아닌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이미지화되어 떠올려진다. 이방인에게 고향은 현실의 불안을 위로해줄 심중의 환상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잘가라, 서커스』에서 유산을 하고 누워 있는 해화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향의 이미지는 이런 정황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온통 흰빛이었다. 마당 가득 널린 흰 빨래들. 희디흰 빨래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한쪽에서 빨래를 탈탈 털어 넣고 있는 엄마. 엄마 뒤로 사열받는 듯 서 있는 자작나무들.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이파리들이 손에 잡힐 듯하다.

연거푸 올려대는 아츠러운 벨소리가 푸른 이파리들을 지웠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었는데 어느 결엔가 잠이 들었다. 눈만 감으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옌지의 거리이거나 고향집 어느 한 곳에 가 있었다. 어찌면 나는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 잠을 자는지도 몰랐다.(『잘가라, 서커스』, 223쪽)

혼자 있다 보면 자꾸 잠이 오고, 그러면 가 닿지도 못할 고향집 꿈을 꾸게 되는 것이 힘들어 해화는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당 가득 바람에 나부끼며 널려 있는 흰 빨래들, 정겨운 자작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배경으로 빨래를 매만지고 있는 엄마. 꿈만 꾸면 그렇게 가 있는 고향집 어느 한 곳이 현실이 아님을 확인해야만 하는 달콤한 고향집의 꿈을 해화는 힘들어한다.

타닥타닥 도람통 치는 소리. 후렴구처럼 들려오는 워낭 소리. 이 소리는 어둠을 거두어가는 돼지 여물꾼의 고향소리다. 달구지 소리가 사라지고 도마를 치는 칼질 소리가 들려온다. 향긋한 밥냄새, 구수한 장국 냄새. 이제 일어나야겠? 나는 방구들에 눈을 채 밥 짓는 냄새에 묻어오는 엄마 목소리를 듣는다. 아버지가 더운물 다 썬다, 얼른 일어나야겠? 나는 눈을 비비며 정지문을 연다, 부엌에는 하얀 김만 가득 서려 있고, 엄마는 없다.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가 나를 고향집에서 불러들였다. 눈을 떴지만 나는 여전히 고향집에 머물고 있었다. 엄마 목소리가 채 가지지 않았는데, 모란꽃 무늬 꽃장과 정지문이 눈에 선한데, 구들의 온기가 몸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는 조금씩 사라져가는 엄마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다. 내가 누운 곳은 고향집이 아니라 여자의 반저하 방이었고, 부엌에 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여자였다.(『잘가라, 서커스』, 228-229쪽)

숨이 사그라들어가는 중에 해화는 고향집을 향해 있다. 고향집을 보는 게 불안하면서도 그녀는 꿈속에서 고향집, 엄마 목소리를 들으며 위안을 얻는다. 그녀를 돌봐주는 조선족 아주머니에게서 엄마의 환영을 보고 해화는 엄마 냄새를 그리워한다. 죽음에 이르러, 해화가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고향은 유년의 고향이다. 부모의 보호 속에서 존재론적 불안 없이 안정된 시간을 보냈던 시기의 이미지로 고향은 이미지화되어 기억된다.

소설 속 조선족 이주민인 만자와 해화의 삶이 더 불안해질수록 그들에게 고향은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 이때 조선족들의 고향 인식을 좌우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관련이 깊다. 이주민들이 인식하는 고향에 대한 기억은 현재적 관점에서의 필요와 역량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되어 역사의 현재를 부각시키며, 삶의 안정과 회복, 정당화로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sup>11)</sup> 이런 식으로 불안한 조선족들에게 환기되는 고향은 그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 희망이 없어 떠난 고향이 아닌, 가족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유년 시절의 공간, 즉 현실의 불안을 달래줄 유토피아로서의 고향으로 다가온다.

### III. 이주민의 정체성 갈등과 고향의 재구성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원문화를 가지고 이주사회에 들어가 토착민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충격을 겪게 되고, 문화의 적응과 갈등, 수용과 배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간다.<sup>12)</sup> 이주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정체성 재확립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인간이 처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의 영향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현재의 공간 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교호하며 변증법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이를 '장소가 주는 고역'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주를 원하면서도 떠남을 지향하는 존재이고,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떠나면서 자유를 느끼지만 동시에 '뿌리뽑힘'의 느낌으로 고통 받는 존재라고 말한다.<sup>13)</sup> 여기서 '뿌리뽑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이 심연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임을 의미한

11) 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제18집(2006), 134쪽.

12) 조민경·김릴,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집 2호(2010), 268쪽.

13)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103쪽.

다. 그래서 이방인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으로 있든지 끊임없이 (심연의) 고향을 떠올리며 현재 자신의 존재 의미를 정립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고향 인식은 이전에 자신이 속했던 근원공간에 대한 이미지로 나타나면서도 다문화 소설에서 나타나듯이 이주민으로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정체성 갈등의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고향은 이전 고향에 대한 기억에 더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재구성되는 고향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현재 조선족의 정체성은 사회분화와 해체를 경험하면서 다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아스포라적 특징을 가진 조선족은 여전히 중국공민이자 소수민족으로서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민족 조선족이 가졌던 민족적 특성이나 소수민족 동질성의 측면에서는 정체성이 약화, 소멸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조선반도의 조선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민족문화를 갖추게 되었다. 더구나 현재 시점에서 조선족 사회와 신세대 조선족들이 가지는 정체성이나 소속감은 기성 조선족들과 달리 중화민족, 한국교포, 또는 조선족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조글로'라는 새로운 정체성까지 형성되는 듯하다.<sup>14)</sup> 이렇듯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이 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류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한국의 다문화 소설은 조선족들이 모국으로서의 한국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문화 소설 속에서 조선족은 대개 내부인의 시선에 일방적으로 고착화된 타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묘하게 그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작중 조선족의 직접적인 진술이나 서술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족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그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지점에서는 그들의 고향에 대한 인식도 같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족은 조선이라는 모국을 지니고 중국에 정착한 이주민족으로, 그들에게 고향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그들에게 고향은 소수민족으로서 중국 사회에서 살아내기 위해 요구된 자신들의 정신적 의지처로,

---

14) 이정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대한정치학회』 25권 2호(대한정치학회, 2017), 100쪽.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디아스포라의 욕망이기보다는 이미지와 장소를 통해 떠올러지는 기억의 비유를 통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문화적 공동체의 발현이자 기억의 저장소라 할 수 있다.<sup>15)</sup> 이런 고향은 역사와 문화적 경험과 관련해 현재적으로 재구성된 기억으로,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심상 공간이다. 조선족에게 고향은 과거로부터의 기억과 현재적 사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자리하는 곳으로, 이들의 내적 동경과 소망이 집단적으로 향유되고 창조될 수 있는 원형 회귀의 자리인 것이다.<sup>16)</sup>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투쟁하며 살아온 조선족의 정체성은 복합적이다. 중국에서 제2국민으로 타자화되어 살고 있는 조선족에게 중국은 감사와 두려움의 모순적 대상이었고, 한국은 먼 조상나라로 종족적 뿌리를 연상시키지만 자신들의 종속성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모순적인 상상 속의 범주였다.<sup>17)</sup> 이러한 모순 속에서 조선족의 제3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는데, 그 본질은 조선족의 정체성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낀 위치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성을 확보해가며 형성된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초국적 이주가 빈번해지고 있는 시대에 그들의 정체성은 상상된 관념으로서의 한민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조선족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에게 ‘조선민족’은 한반도 혹은 한민족이 아니라 조선족만의 또 다른 작은 민족으로, 이러한 양상은 조선족의 오랜 이주와 소수종족으로서의 삶의 역사에 더해 최근 한국에서의 초국가적 이주와 이주노동 경험에서 촉발된 것이다.<sup>18)</sup> 다문화 소설은 이런 조선족들의 정체성 갈등을 보여주며 한국으로 재이주한 그들에게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15) 김은영, 앞의 논문(2006), 134쪽. 이전에 조선족이 적극적으로 고향으로 이주한 사례가 있는데, 중국 조선족은 북한의 해외동포귀국사업이 시작된 1959-1962년에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이는 북한의 정책에서 기인하기도 했지만 다조국론을 취하고 있던 조선족이 중국과 또 다른 차원의 ‘민족조국’으로의 이주를 꿈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고향에 돌아간 조선족은 북한의 열악한 현실에 실망해 다시 중국으로 재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박종철,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학회, 2015, 171-172쪽).

16) 김은영, 위의 논문, 147쪽.

17) 강진웅,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제46집(2012), 131쪽.

18) 위의 논문, 115쪽. 초국적 이주를 경험하며 중첩된 이주의 역사 속에서 조선족은 과거와 달리 한민족으로서의 상상된 정체성은 거의 사그라졌고 동시에 중국 국민 정체성 속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종족적 정체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위의 논문, 115쪽).

『가리봉 양꼬치』에서 조선족 불법체류자 ‘임파’는 아버지를 자주 떠올린다.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온 할아버지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헤이룽강성(黑龍江省) 닝안(寧安)시에서 태어나 임파를 낳았다. 경계인의 숙명을 지니고 산 그의 아버지는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소식(蘇軾)의 시, ‘내 본시 집 없거늘 또 어디로 간단 말이나(我本無家更安住)’를 읊곤 했다.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 살아갈 코스모폴리탄이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걸도는 우리 같은 떠돌이를 흔히들 경계인이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야말로 상대방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고, 양쪽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가리봉 양꼬치』, 81쪽)

모국을 두고 온 조선족으로서 겪었어야 했을,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었던 경계인으로서의 아픔과 갈등을 경험한 아버지는 임파에게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 살아갈 코스모폴리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덕분에 코스모폴리탄을 숙명으로 알고 자란 임파지만 그는 동시에 한민족으로서 민족적 동질성을 꿈꾸며 시월의 고향 ‘발해풍의 정원’을 꿈꾼다. 한민족과 조선족으로 분리되지 않았던, 원래 하나였던 시절의 아름다운 유토피아적인 고향을 꿈꾸며 임파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

가리봉동으로 들어가려면 전철에서 내려 육교를 건너야 했다. 그 육교는 서울 시내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파란 육교였다.

육교 전체에 초록색 인조 카펫을 깔아놓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부드러운 감촉에 발길이 절로 가벼워졌다. 시내에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한 날에도 나는 그 파란 육교만 밟으면 고향 모퉁이에라도 들어선 것처럼 마음이 훈훈해왔다. 그날도 나는 가리봉동 쪽으로 난 계단 꼭대기에 한참 앉아 있었다.

시월의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고층 빌딩 꼭대기에 걸려있었다. 몇 달을 찾아다니던 일이 헛수고로 드러나고 다시 또 해가 지는 모습을 보자 괜히 코끝이 찡해오면서 닝안의 부추밭 옆 고향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는 내 고향이 닝안인지 서울인지 나도 헷갈렸다.(『가리봉 양꼬치』, 87-88쪽)

한국에서 험한 일만 당하는 임파는 이제 고향이 닝안인지 서울인지조차 헷갈리게 된다. 중국에서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고향이지만 조선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서울에서 임파는 고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서 임파는 정신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위안과 안정을 찾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진다. 그가 태어난 ningan도 조선족들이 동경했던 서울도 고향이 되어주지 못한다. 고향이라고 찾아온 서울에서 임파는 고향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고 만다.

한편 『잘가라, 서커스』에서도 조선족 ‘해화’와 그의 연인 ‘그’는 발해를 꿈꾼다. 옛 발해의 영토에서 살고 있는 연변의 조선족들에게 발해는 이주민이자 소수민족으로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한민족이라는 동질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지니게 해주는 옛 역사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내적 동경과 소망을 실현시켜줄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발해는 조선족들에게 시원의 고향이다.

무덤은 담담한 붉은빛이었다. 남자는 벽에 코를 바짝 들이댔다. 나도 남자를 따라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매케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냄새였다.

‘봐, 발해 공주 무덤이야. 발해가 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여기 관이 두 개 있었어. 지금은 옮겨놓았지만 [...] 정효공주가 죽은 후 일년 뒤에는 문왕마저 죽어, 강력한 왕이 죽고 난 후 왕국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면 발해가 사라진 건 이 무덤 때문인지도 모르겠어.’

[...] 그와 나는 무덤이 폐쇄되기 전까지 몇 번 더 그곳으로 들어갔다. 무덤에 들어가면 그는 나긋한 목소리로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내가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 묻어놓은 뿌듯함과 애처로움은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가슴속에 박혀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벽화에 그려진 악사가 비파를 연주하고 무희들은 옷깃을 펴리며 춤을 추었다. 나는 들었던 적 없는 왕국 속에서 살았다. 그 속에서 호흡을 하고 그 속에서 잠을 잤다. 아주 오래 전 사라져버린 작은 왕국. 무덤 속에 묻혀버린 잊혀진 나라. (『잘가라, 서커스』, 32-33쪽)

발해의 공주였던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견된 곳에서 조선족 남녀의 사랑은 싹튼다. 그리고 각각 한국으로 이주해 온 그들의 사랑은 항상 그 발해 공주의 무덤과 연결되어 있다. 그 무덤 속에 묻혀버려 잊혀진 나라인 발해의 후손으로서 조선족 남녀는 일종의 송신탑 같은 무덤과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교감한다. 숙명적으로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갈등을 겪으며 자랐을 조선족 남녀에게 무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해주는 실존적인 고향인 것이다. 그래서 해화는 중국 당국이 가져가 버린 정효공주의 무덤을 보며 심장을 강탈당한 기분을 느낀다. ‘그’로 인해 발해의 후손으로서의 자신의 근원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그와

교감하며 온전한 사랑을 꿈꾼 해화에게 무덤은 실존적인 고향이 된다. 그런 무덤을 강탈당하면서 해화의 삶은 비극으로 치닫는다. 이제 무덤은 꿈에 잃어버린 왕국으로 나타난다. 그녀가 끌어안고 있는 이상향 발해는 무너져버린 발해를 상징하는 ‘쓸모없는 기왓장이나 돌맹이’로 현현한다. 발해를 붙잡고 민족적 동질성을 느껴보려 하지만 허망하고,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숙명과도 같은 발해를 그리워하는 정황은 조선족들이 겪는 정체성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잘가라, 서커스』에서 해화의 연인 ‘그’는 발해사를 공부하는 조선족 청년이다.

“저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느닷없었다. 바다를 보고 길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상했다. 굳이 바다에 난 길을 생각해봐도 무슨 별다른 길이랄 것도 없었다. 내가 수없이 드나들었던 뱃길…….

“뱃길 말시오?”

“그냥 뱃길이 아닙니다.”

“그냥 뱃길이 아니면 뭐 특수 뱃길이라도 있소?”

“천삼백 년 전에 말입니다. 만주와 연해주 땅에 해동성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겠죠, 발해.”

남자의 입에서 발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또다시 여자를 떠올렸다. [...]

“발해가 도대체 어쨌다는 거요?”

내 목소리는 스프링처럼 튕겨올랐다. [...]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냥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시오?”(『잘가라, 서커스』, 142-143쪽)

발해의 역사와 발해인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그는 발해의 역사에 무심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조선족 청년에게는 대단한 발해의 뱃길이 한국 청년에게는 무심한 길일 뿐이다. 이주민의 후손인 ‘그’에게 발해는 내려놓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지니며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발해는 지나간 역사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못한다.

그는 한국인이니까 뗏목 탐사를 하는 거라고,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뗏목 탐사에 참가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한국인이 아녜요. 나는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뗏목엔 탈 수



없는 거구요. 나는 분명 발해의 영토에서 나고 자랐는데 말입니다. 근데 발해인들이 정말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나는 차라리 발해가 중국이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남자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이고 중국이고, 발해고 고구려고, 민족이고 나라고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남자에게 절실한 그 단어들은 내 삶과는 아주 먼 그저 글자에 불과할 뿐이었다. 나는 딱히 해줄 말이 없었다. (『잘가라, 서커스』, 158쪽)

더구나 ‘그’는 자신은 하고 싶어도 한국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발해의 뱃길을 탐사하는 ‘뗏목 탐사’를 한국인이면서도 참가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그는 발해의 영토에서 나고 자란 자신이 한국인일 수 없고 중국인일 뿐이라는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며 차라리 발해가 중국의 영토였으면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조선족 ‘그’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에 와서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심연의 고향도 잃어버린다.

“..... 처음에 한국에 오기로 했을 때 말입니다. 고향을 찾는다는 기분으로 왔다 말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큰돈 벌자고 오기도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발해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여기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궁금했습니다, 발해가 정말 누구의 역사인지. 그리고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 이제 알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오쥬엔 여기서 저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아니면 저렴한 노동력이든가요.”

[...] “밀항을 할 겁니다.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알아두었습니다. 가서 탐사대가 입성하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 겁니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도, 여기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도 싫습니다.”

“.....”

“한편 서커스를 끝내고 난 기분입니다. 이젠 그만두어야겠습니다. 서커스 짓거리 말입니다.” (『잘가라, 서커스』, 220-221쪽)

애초에 중국에서 발해사를 공부하는 ‘그’는 고향을 찾는다는 기분으로 한국에 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건 그에게 한국은 고향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는 다른 이주민들과 다름없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방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으로, 한국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싫은 청년은 이도저도

아닌 제3국 일본으로 밀항할 것을 결심한다. 그러면서 그는 ‘서커스’를 끝냈다고 말한다. 그에게 절망만 안겨준 한국에서의 고향 찾기는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아슬아슬한 서커스와 맞먹는 것이었다.

이렇듯 소설에서 이주민의 후손인 조선족은 ‘발해’와 같은 자신들의 심연의 고향을 끊임없이 그리워한다.<sup>19)</sup>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 고향은 꼭 다시 돌아갈 곳으로서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이주민이라는 불안한 인간이 바라는, 심적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추상적 심상 공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그 심연의 고향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조선족들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공간으로 고향을 찾아 떠나려고 하거나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나갈 것임이 소설에서 암시된다.

#### IV. 혼종적 공간 속 탈경계의 욕망

인간이 장소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경험하든 개인적으로 경험하든 거기에는 보통 긴밀한 애착, 즉 친밀감이 생기는데, 이 친밀감은 특정 장소에서 그곳을 알게 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우리가 장소에 내린 뿌리는 바로 이 애착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 애착이 포괄하고 있는 친밀감은 단지 장소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까지 포괄한다.<sup>20)</sup> 또한 장소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 장소와 깊은 유대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욕구이다. 뿌리에 대한 욕망은 질서·자유·책임·평등·안전에 대한 욕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그리고 사실 어떤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영혼의 다른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일 것이다.<sup>21)</sup> 이런

---

19) 실제로 발해의 옛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발해의 의미가 어떤지는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중에서 조선족들은 이주민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의 근원을 발해에서 찾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작중에서 제시되는 시원의 공간 발해는 꼭 역사상의 실제 공간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주민의 후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근원적인 고향과 같은 시원의 공간을 암시하는 비유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공간 인식의 문제로 발해를 인식할 수도 있다.

20) 에드워드 렐프 저, 김택현 외 역, 앞의 책(2005), 93-94쪽.

21) 위의 책, 94쪽.

식으로 인간이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고,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sup>22)</sup>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고향이다.

인간에게 고향은 특별한 애착이 있는 장소이다. 그 고향이 심연의 추상적인 공간이든 구체적인 현실공간이든 인간에게 고향이라는 장소는 애착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런 고향에서 이주한 이방인들은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다. 새로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가고자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심연에 있는 고향을 열망하며 그것과 유사한 것을 찾아 나서거나 그것과 유사하게 자신들이 거주할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간다. 이때 이방인들이 지향하는 고향의 모습은 유토피아적이다. 아감벤(Giorgio Agamben)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꿈꾸는 고향은 그 존재가 존재하는 대로 자신을 노정하는, 임의적 특이성이 발현되어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다.<sup>23)</sup> 한마디로 그곳은 중심과 주변이 사라지고, 이방인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곳이다. 다문화 소설 속 이방인들이 낯선 공간에서 꿈꾸는 새로운 고향의 모습은 이런 식이다. 혼종의 문화를 만들어 문화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원의 공간을 재현하여 이질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어우러져 사는 것을 꿈꾸는 모습이 소설 속에서 확인된다.

『발해풍의 정원』에서 조선족 임파는 어린 시절 조선어 교사를 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발해풍 정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닝안시에서 조선어 교사를 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소학생이던 나를 징보호(鏡泊湖)로 데리고 갔다. 약 1만 년 전 화산 분출 때 생긴 중국 최대의 호수로 그 부근이 발해의 유적지인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가 있는 곳이라고 역사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곳이었다.

‘발해성터에서 무엇을 해야 할꼬, 나라일 걱정에 하룻밤이 일년 같구나.’하고 읊었다는 어느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다. 중국이 발해 역사를 훔쳐가 무슨 일을 꾸미려 한다고 했지만 나로서 도무지 모를 얘기였다. 그저 난생 처음 보는 드넓은 호수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다.

22) 위의 책, 95쪽.

23) 조르조 아감벤 저, 이경진 역, 『도래하는 공동체』(꾸리에북스, 2014), 158쪽.

호수 주변에는 울망졸망 산봉우리와 괴상하게 생긴 바위산이 솟아있고 그 사이로 폭포가 춤추듯 힘차게 쏟아지고 있어서 어린 마음에도 정말 세상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경치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폭포촌(瀑布村)에 ‘발해풍 정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세워진 조선족 민속촌이었다.

그곳에서는 조선족 춤과 씨름경기, 그네뛰기, 널뛰기 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새납이며 장구와 팽과리, 해금 등을 연주하면서 관광객을 맞고 있었다. 나는 새납이라고 불리는 관악기가 신기했다. 끝에 나팔이 달려있어서 음을 진폭해 주는 듯했다. 고음의 멜로디가 구슬프게 가슴을 파고들고 장구와 팽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색동저고리에 빨간 치마, 노랑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두 소녀가 암광지게 널을 뛰는 장면은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 (『발해풍의 정원』, 82-83쪽)

‘발해풍 정원’은 발해의 유적이었던 곳에 세워진 조선족 민속촌이다. 임파에게 발해는 역사 시간에만 배운 지난 과거의 역사일 뿐이었다. 그런 임파가 ‘발해풍 정원’에서 본 조선족의 춤과 악기, 놀이 등이 어우러진 광경은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 어린 임파에게 아버지가 발해풍 정원을 보여준 것은 중국이 빼앗아가려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임파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덕분에 임파는 어린 시절에 본 ‘발해풍 정원’을 실현하고 싶은 꿈까지 지니게 된다. 비록 고향을 떠나기 전 그가 본 ‘발해풍 정원’의 모습이 예전과 달리 전통은 퇴색하고 새로운 한류 스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변화를 겪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으로 코스모폴리탄을 지향하며 발해풍 정원을 꿈꾸는 청년 임파는 한국에서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만, 가리봉동에 ‘발해풍 정원’을 만들 꿈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꿈꾸는 진짜 발해풍의 정원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온 가족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던 순한 고향 마을의 모습, 아마 한국인들도 이미 잊어버린 정원인지도 몰랐다.

“그 정원을 만들려면 먼저 값싼 양고기를 많이 팔아 돈을 벌어야 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념장에 재어 노란내를 없애야 하는데.”(『발해풍의 정원』, 76쪽)

임파가 꿈꾸는 발해풍의 정원은 한마디로 ‘순한 고향 마을의 모습’이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대대로 내려오며 온 가족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고향을 실현시키는 게 임파의 꿈이다. 그런 고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임파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모두 좋아하는 부추를 이용해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는 양고기를 만들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발해풍정원을 만들고자 한다. 임파가 만들고자 하는 양꼬치는 원래 조선족에게도 낯선 이방인의 음식이었다. 그런 조선족이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방인의 음식을 접하고, 그들과 어울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조선족이기에 임파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살려 한국인이 좋아하는 양꼬치를 만들어 함께 섞여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다.

식탁 준비는 끝났지만 아직 만찬장 분위기를 만들려면 멀었다. 나는 밤마다 쪽방에서 틈틈이 그려두었던 그림들을 꺼내와 식당 벽에다 붙였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소녀들이 널뛰는 모습, 그네를 구른 뒤 댕기를 날리며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담은 그림도 있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그 옆에선 여인네들이 고추방아를 찧는 그림에다, 북과 팽과리, 새남을 불어대며 풍물놀이를 하는 그림도 있었다. 정보호의 파란 물결과 세찬 폭포줄기와 발해 성터를 그린 그림도 물론 준비했다.

내가 Ningan에서 보았던 발해풍의 정원을 내 나름대로 그린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유리창 위 벽면에다가 검은 색 싸인펜으로 발해풍정원이란 글자를 한자로 써 붙였다. 이제 풍악이 있어야만 한다.

나는 주인집 딸에게 간곡하게 부탁해 빌려온 카세트 녹음기에다 얼마 전에 쫓겨간 장룡이 형한테 얻은 테이프를 넣었다. 추이지엔의 노래가 흘러들었다. 발아래 땅이 움직이고, 주위에 저 물은 흐르고 있는데/ 넌 줄곧 비웃었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분회의 한국 친구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 노래를 들려줄 것이다. (『발해풍의 정원』, 92-93쪽)

유리창엔 다시 주방장 모자를 쓴 요리사 모습이 나타났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그림으로 써 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발해풍의 정원을 여기 꾸며놓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꿈꾸던 정원.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아무도 남의 나라라는 쭈뼛거리림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곳. 거기엔 한국 사람들 입맛에 꼭 맞는 가리봉 양꼬치도 준비되어 있었다.

부모님을 찾지 못해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나를 믿고 가게를 전적으로 맡겨주는 주인아저씨와 또 좋아하는 분회가 있어 가리봉동은 내가 등을 부릴 수 있는 따스한 언덕이었다. 내 양꼬치로 해서 가리봉, 내 누나 같은 가리봉은 이제 유명해질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Ningan에서도 서울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발해풍의 정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다. (『발해풍의 정원』, 95쪽)

양꼬치 양념을 개발한 임파는 여자 친구 분회가 초대했다는 한국인 친구들을 기다리며 식당을 '발해풍 정원'의 느낌이 나도록 꾸며놓고

한국인도 좋아할 만한 양꼬치를 준비해놓는다. 임파가 꿈꾸는 고향은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아무도 남의 나라라는 쭈뼛거림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조선족으로 살고 있는 ning안에서도 또 다른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서울에서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발해풍의 정원이다. 비록 임파가 재현한 ‘발해풍 정원’이 싸인펜으로 그려진 허상뿐인 것이지만, 임파는 부모를 잃게 만들고 자신을 불법체류자로 만든 고국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분회가 데리고 온 이들은 임파의 양꼬치 양념을 탐내는 조폭이었고, 임파는 그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만다.

비록 임파가 꿈꾸는 ‘발해풍 정원’은 꿈으로만 남았지만 그가 꿈꾸는 ‘발해풍 정원’의 모습은 다문화 사회에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순한 고향의 모습을 지닌 발해풍의 정원을 찾아온 조선족들에게 한국은 낯설기만 한 곳으로 다가온다.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조선족들에게 가리봉동은 비록 조선족 집단 거주지와 같은 계토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지만 중국음식점이 즐비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풍기는, 그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 이제 한국인도 잊어버린 고향의 모습을 재현하겠다는 조선족 청년의 꿈은 무모해 보이면서도 의미가 있다. 그가 꿈꾸는 꿈은 이방인들의 꿈이다. 새로운 곳에서 고향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이방인들의 꿈이다.

그래서 『발해풍의 정원』에서 말하는 ‘발해풍 정원’은 상징적이다. 적어도 그곳은 이쪽과 저쪽의 구분이 없었던 곳으로, 조선족의 불행한 역사도 기억도 없는, 그래서 떠돌이라는 숙명을 달고 살지 않아도 되었던 시대의 상징이다. 그런 정원은 인간 모두가 꿈꾸기 마련이다. 이제는 없는, 잃어버린 고향으로서의 발해풍의 정원을 꿈꾸는 임파는 다행스럽게도 허상만 좇지 않는다. 그는 사과배와 양꼬치 요리처럼 혼종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았던 조선족의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도 혼종의 문화를 만들어 조선족이 중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듯 한국에서도 순조롭게 정착하기를 바란다. 경계가 없고, 그래서 혼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은 임파나 수많은 이방인이 꿈꾸는 현대의 고향일 것이다. 이러한 임파의 시도는 초국적 이주가 빈번해진 시대에 고향은 자기가 떠나온

곳이 아니라 자기가 머무르며 자신의 문화를 혼종시켜 향유하며 자유롭게 사는 곳을 암시한다.

## V. 이주의 일상화와 편재하는 고향

이제 현대인은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가 빈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는 탈향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면서, 인간에게 실존의 조건인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안한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고향을 어디에서든 찾아야만 하는 숙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럴 때 인간이 그리워하는 고향은 각자가 떠난 차이로서의 고향이라기 보다는 보편성을 지닌 근원공간으로서의 고향으로 인식된다. 이제 현대인들은 잃어버린 시기의 아름다웠던 곳으로, 상상된 유토피아로서의 고향으로 자신들이 떠난 공간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한번 떠난 고향은 어디에도 없지만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편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향의 기억과 유사한 곳에서 인간은 고향을 느끼고 안정을 찾으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21세기 초국적 이주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소설에는 국경을 넘어온 이런 실향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에서의 정착이 만만치 않은 불안한 이주민들은 끊임없이 불안을 달래줄 고향을 그리워한다. 다양한 이주민들 중 조선족 이주민에게 고향의 의미는 더욱 심원하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의 중첩된 이주를 경험하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조선족들에게 한국은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불안한 공간이다. 그렇게 존재의 불안 속에서 조선족들은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사과배를 자주 떠올리거나 자신들이 두고 온 고향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위안을 받는다. 조선족들이 고향을 떠올리는 순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만큼 현실이 고달픈 극한의 불안 속에서이다.

조선족들은 이렇게 불안 속에서 고향을 찾으면서 동시에 극심한 정체성 갈등을 겪는다. 고향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온 조선족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조선족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과연 자신들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회의론을 갖게 한다. 그렇게 조선족들은 정체성 갈등을 겪으며 상상된 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갈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국에서 고향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제2의 고향을 꿈꾸기도 한다. 이주 과정에서 문화적 혼종을 경험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족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고향을 실현해가며 한국에서 정착해보려는 야심찬 꿈을 꾸기도 한다. 소설 속에서 이쪽과 저쪽의 경계 없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픈 이방인의 숙명을 지닌 조선족의 꿈은 절박해 보인다. 현재 세계는 문화적 혼종이 더욱 빈번해진 시대로, 순수 토착문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이다. 이제는 다양한 인종이 교류하고 문화가 혼종되면서 새로운 혼종의 문화가 형성되는 시대이다. 소설에는 이처럼 문화 혼종이 빈번한 시대에 조선족들이 그들의 경험을 살려 혼종의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고향을 꿈꾸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렇듯 다문화 서사는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고향을 잃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주민의 애환을 보여준다. 이때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고향의 이미지는 특정 공간이라기보다는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보편적인 원형 공간으로서의 고향의 이미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 서사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존재 방식을 사유하게 하면서 동시에 근원적인 고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고향의 의미를 사유하게 한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 공선옥, 『유랑가족』. 실천문학사, 2005.  
박찬순, 『발해풍의 정원』. 문학과 지성사, 2009.  
천운영, 『잘가라, 서커스』. 문학동네, 2005.  
한수영, 『그녀의 나무 핑귀리』. 민음사, 2006.

### 2. 단행본

- 아르준 아파두라이 저, 차원현 외 역,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저,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이기상, 『존재와 시간』. 살림출판사, 2006.  
조르조 아감벤 저, 이경진 역,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북스, 2014.

### 3. 논문

- 강진웅,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제46집, 2012.  
김광기, 「멜랑콜리, 노스텔지어, 그리고 고향」. 『사회와 이론』 제23집, 2013.  
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제18집, 2006.  
박종철,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학회, 2015.  
서동훈, 「다문화사회의 소설적 재현에 대한 연구」. 『한국말글학』, 한국말글학회, 2012.  
송현호, 「〈가리봉 양꼬치〉에 나타난 이주 담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1호, 2012.  
연남경, 「다문화 소설의 탈경계적 주체 연구 '이방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오윤호,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와 우리 안의 타자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4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이미림, 「다문화 공간에 나타난 지리적 타자성: 2000년대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 63집, 한국문학회, 2013.  
이정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대한정치학보』 25권 2호, 대한정치학회, 2017, 100쪽.  
이호규, 「'타자'로서의 발견, '우리'로서의 자각과 확인」. 『현대문학의 연구』 제36집, 2008.  
조민경·김렬,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집 2호, 2010.

## 국 문 초 록

현대인은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가 빈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고향을 떠나는 탈향민이 급증하고, 인간에게 실존의 조건인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21세기 초국적 이주의 현실을 담아내는 한국의 다문화 소설은 이런 국경을 넘어온 실향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문화 소설 속 이방인들 중 조선족 이주민들에게 고향의 의미는 더 심원하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의 중첩된 이주의 경험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정착을 꿈꾸는 조선족들에게 한국은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불안한 공간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조선족 소재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소설이 '고향의 문제를 얘기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더불어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보았다.

소설 속에서 존재의 불안을 겪는 조선족들은 고향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위안을 받는다. 또한 조선족들은 고향으로 여겼던 한국에서의 심한 냉대로 정체성 갈등을 겪으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갈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족들은 불안한 한국에서 제2의 고향을 꿈꾸기도 한다. 이주 과정에서 문화적 혼종을 경험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고향을 실현해가며 한국에서 정착해보려는 야심찬 꿈을 꾸기도 한다.

이렇듯 다문화 서사는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고향을 잃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주민의 애환을 보여준다. 이때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고향의 이미지는 특정 공간이라기보다는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보편적인 원형 공간으로서의 고향의 이미지이다. 이런 다문화 서사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존재 방식을 사유하게 한다.

**투고일** 2017. 6. 18.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다문화서사(multicultural narrative), 초국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 고향(hometown), 불안(anxiety), 조선족(Korean-Chinese), 정체성(identity)